기복 아닌 작복의 기도로

지금 이 세계戒

⑨ 잘해 왔고 잘했어요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수능시험 앞두고 입시 기도 열기 뜨거워
수험생 노력 결실로 이끄는 작복의 기도

수능 후 펼쳐질 일도 삶의 전부는 아니야
다시 해야 할 일 찾고 나아가는 이들 되길

'되는' 삶 좇지 말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
자신 믿고 행함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간절한 하루가 될 날이다. 바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입시에 대한 집중과 열정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강한 나라다. 어려운 역사를 거치고 가난했던 과거를 보냈던 기억에 다음 세대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시키다 보니 이런 입시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학입시를 다루는 경우도 많지만, 결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당장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도의 잘못을 탓하거나 불만을 말하기 전, 지금은 곁에서 힘이 되는 응원을 해 주고 함께 이 시기를 보내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 줘야 한다. 어차피 지금은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 수능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0월이 되면 한 해 중 기도의 열기가 가장 뜨거워진다. 전국의 기도처와 특별한 기도도량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불자와 비불자 모두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 간절히 합장을 한 채 하나 된 기도와 축원을 올린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대학입시 기도이다. 같은 경험을 하고, 그 시절을 보내 본 분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과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대학에 합격하냐"며 다소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항상 말한다. "기도하기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고, 기도하기에 바라는 일이 무엇이든 이뤄진다"고.

기도라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분명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것은 복을 빌어서 얻는 '기복(祈福)'적 행위다. 하지만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기복의 그것이 아닌, 자신의 간절한 발원(마음)과 그에 따른 수행(노력),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혹은 대상)이 하나가 되어 복을 만드는 '작복(作福)'의 기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시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연기(緣起)'와 '업(業)'이다. 과거 인도 베다에서의 업은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라는 신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여겼다. 그런 개념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카스트'라는 신분제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그런 결정된 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태어나 살아가며 행(行)하는 자신의 삶에 의해 업이 형성되고 그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법을 설하셨다. 즉, 결정론이었던 업을 수행적으로 이끌어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과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렇기에 고정된 자신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無我)'의 개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수행)에 따라 그 삶과 모습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바뀔 수 있기에 '무상(無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수능을 앞두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자신의 내일을 보다 나은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이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곁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해달라는 허망한 기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그 노력만큼만 성취하고 만족할 수 있게 지켜 달라는 작복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교육제도와 현실에 의해 12년간의 교육을 받고 그 끝에서 대학이라는 사회로의 출발점을 위해 수능을 치러야만 한다. 1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은 마음껏 놀거나 쉬어 보지도 못한 채 열심히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수행자의 삶과 같이 보내온 고 3의 시간이 큰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공부와 노력을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는 것뿐이다. 그냥 하는 것이다. 혹시라는 걱정과 의심을 'Only Don't Know(오직 모를 뿐)'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Only Do(오직 할 뿐)'한다면, 숭산 큰스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은산철벽의 수능도 단번에 꿰뚫어 내일의 참된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무엇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피겨 김연아 선수) "생각이 많아지면 자세만 헝클어져요.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역도 박혜정 선수) 그동안 수없이 연습해 온 노력의 궤적이 있기에 그것을 믿고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해 온 노력을 자신이 의심하고 걱정한다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학창시절에 해 온 '노력의 여정이 값진 보상이 될 것이다("The journey is the reward." 스티브 잡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다. 정말 다양한 일과 감정이 차츰 아이들 앞에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현실도 삶의 전체는 아니다.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삶이 바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이 삶의 전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그 순간'이 다시금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혹여 슬프거나 속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모든 것이 점철되고 굳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다시 해야 할 일을 찾고 그것을 하는 자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커서 ○○이 될 거예요", "○○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되거나' '된'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야만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 되어서 시작하는 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무언가가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무언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 관념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스며들어 있다.

수능을 마치면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찾는다. 대학을 가서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학과인지도,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도 모른 채 대학의 이름만을 좇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 새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비로소 대학생이 되어서도 무엇을 배우는지도,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있게 된다. "대학생만 되면 ○○를 할 거야",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라는 말은 마치 새빨간 거짓말처럼 되어버리고, 다시 '하는' 삶이 아닌 '되는' 삶을 좇아 허겁지겁 내달리기 바쁜 일상에 스스로 들어가 버린다.

삶은 수행이다.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그것에 조금씩 익숙해지며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통해 스스로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수행에 앞서 인욕을 통해 자신을 다듬고 난 후 정진과 선정을 닦아 지혜를 증득해야 한다고 설하는 것이다.

지금은 눈앞의 수능에 집중하고 지금까지 해 온 자신을 굳게 믿어, 필연적인 수능을 모든 수험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 치르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사유해 보고, 하려는 것을 찾아 스스로 나아갔으면 한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라는 가르침과 같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배워 온 수많은 공부와 지식을 이제 자신의 토대로 삼아 그 끝에서 자신만의 한 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가자.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잘해 왔고 잘했어요. 지금까지 해 온 공부의 노력과 참아 온 시간을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하루에 쏟아내고 타인에 의한 자신이 아닌, 자신에 의한 자신의 하루를 만끽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내기를 합장하며 발원합니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사부대중 일동

금강경 독송 정진기도 첫째주 월, 화, 수요일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 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